

# 김영록 지사, 전남 맛·멋·흥 알리고 3000억 투자 유치 성과

###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서 지방분권 실현 방안 등 논의 세계관광문화대전 참석 전남 소개...유럽 순방 마무리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 참석해 세계관광문화대전 등 전남 맛·멋·흥의 매력을 현지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에 소개했다. 또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방문해 마틴 돌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공식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김 지사는 6박7일 유럽 순방에서 덴마크 베스타스-머스크의 3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독일 베를린 마리히토텔에서 열린 이날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에는 현지 여행업계,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원직 주독일 공사, 랄프 오스텐도르프 베를린관광청 대표, 정성

규 재독한인총연합회장, 김상근 재독호남향우회장 등 독일을 포함해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관단체 인사가 대거 자리를 빛냈다. 유럽에서 열리는 전남 관광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남을 축제와 관광의 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콘텐츠와 명품 숙박시설, 특색있는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알렸다. 김영록 지사는 관광설명회 개최식에서 "역사와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적 도시 베를린에서 '전남 유럽 관광설명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 관광축제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을 개최해 다양한 축제와 흥미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소비력 높은

유럽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전문여행사와 손잡고 관광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동시에 개별 관광객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어 독일 베를린의 작센주 베를린 대표부를 찾아 마틴 돌릭 연방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틴 돌릭 연방상원의원은 "작센주와 전남도 간 협력을 드레스덴에 있는 경제협력기관에서부터 시작하길 바라고, 한독포럼의장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발전으로 지방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현지 시간) 독일 작센주 베를린대표부 건물에서 마틴 돌릭 상원의원 겸 작센주 부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 방법 적절성 검증 나서

### 광주시의회 5·18특위, 조사보고서 등 18개 항목 공개 요구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부실 보고서 논란과 부정적인 시인 평가를 받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8일 5·18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조사보고서, 연도별 조사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구체적 사무분장, 강제 조사 권한 활용 명세, 출장·영역·자문 명세, 사무처·소위원회·전원위원회 내부 회의록 등 18개 항목에 대해 공개를 요구했다.

5·18특위는 시민들이 4년 동안의 조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조사위 활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위는 입수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책을 찾아 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며 보안 입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다운 5·18특위 위원장은 "22대 국회 회원과 조사위 활동 종료 시기가 겹치며 조사위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에 공백이 있다"며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조사 방법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투명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 광주시, 이웃과 공동육아 확대...사회적 가족도시 '성큼'

### 남구가족센터 개관

광주시가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축을 위해 기반 시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임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센터 내내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배치됐다.

광주시에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해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와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오후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김병내 남구청장 등 내빈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를 건립한다. 올해는 이번 남구가족센터 이어 다음 달 광산구가족센터가 개관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행정부

합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공간을 활용한 영유아 놀이공간 및 초등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현재 9곳인 나눔터를 2곳 이상 확충·운영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18기록관,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

### '오월 일기' 집중 조명...내일 개막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및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개관 4주년을 맞아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기획전실에서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개막식은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오월 일기'를 집중 조명하는 게 특징이다. '오월 일기'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열흘간의 항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작성한 개인 일기다. 일기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당시 사건을 생생하게 알리고, 국가폭력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겪은 평범한 시민의 분노와 불안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한규 일기', '조한유 일기', '주소연 일기', '주이택 일기' 등 4개 일기와 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이 작성한 '김현경 일기'를 포함한 다양한 필자들의 시선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동화책 '오늘은 5월 18일'을 통해 그림일기 형태로 재해석된 5·18민주화운동의 모습도 함께 선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매력적인 도시브랜딩... '광주 브랜드 학교' 개강

### 7월까지 교육프로그램 진행

광주시에 "지난 2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젝트 강좌 '광주 브랜드 학교'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 브랜드 학교'는 교육생 36명 모집에 나선 가운데 시각디자이너 및 디자인 전공자, 문화기획

자, 홍보 분야 종사자, 공직자 등 총 77명이 지원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생들은 오는 7월까지 도시사물디자인, 도시언어디자인, 도시경험디자인 등 3개 분야에서 도시브랜드 기획 이론 및 실습, 조인 프로그램, 워크숍 등 7차시 수업(35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부산 영도와 경북 포항의 도시브랜딩을 주도한 국민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팀이 강사진으로 참

여하며, 도시 브랜드 디자인 경험과 도시 홍보물 제작 등 현장감 넘치는 비법을 전달하고 조인(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우수 수료생 10명에게 시정 홍보행사와 홍보물 기획 참여기회, 실습교육 결과물 사업화 기회 등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또 시민이 직접 광주의 매력과 경험을 도시브랜드로 디자인하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이 조금 더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직한 수산물

# 별海별味 양갱 선물세트

별海별味 양갱은 끝없이 펼쳐진 깊은 바다 속, 우리 바다의 건강한 맛을 양갱에 담았습니다.

www.shshopping.co.kr  
수협쇼핑과 sh수협마트에서 구매하세요.

연출사진입니다.

[ 18개입 선물세트 ]  
45 g x 18개입 (810 g / 2,400 kcal)

[ 16개입 선물세트 ]  
45 g x 16개입 (720 g / 2,200 kcal)

[ 12개입 선물세트 ]  
45 g x 12개입 (540 g / 1,600 kcal)

[ 5개입 세트(4종) ]

- 해삼·홍삼 양갱 45 g x 5개
- 감태·감귤 양갱 45 g x 5개
- 다시마·말차 양갱 45 g x 5개
- 함초·흑임자 양갱 45 g x 5개

준법감시심의필-제B240054호(2024.03.27)